

순천만·장흥교도소 활용 사업 탄력

〈폐염전 갯벌 복원〉 〈문화예술 복합공간 조성〉

전남도 지방재정투자사업 52개 심사 48개 '적정' '조건부' 의결... 여수 돌산 항일암권 관광자원 개발사업 등 '재검토'

순천만에 방치된 폐염전을 갯벌로 복원하고 장흥교도소를 문화예술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반면, 여수 돌산 항일암권 관광자원 개발사업과 광양 백계산 동백정원 조성사업은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최근 52개 투자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의, 4개 사업을 제외한 48개 사업에 대해 '적정' 또는 '조건부'로 의결했다. 심의위원회는 ▲여수 동동 북측 ▲2019 순천 KOVO컵 프로배구대회 ▲회령진성 복원 정비사업 ▲2019 추석장사 씨름대회 ▲순천만 갯벌복원사업 ▲2019 신안 세계 섬, 바다 축제 등 26개 사

업에 대해 적정 판단을 내렸고 ▲청년 창업타운 조성사업 ▲섬마을 너울길 조성사업 ▲화순야구장 건립사업 ▲장흥교도소를 활용한 문화예술 복합공간 조성사업 ▲대불 국가산단 환경개선사업 등은 일정 조건을 충족시킨 뒤 추진할 것을 통보했다.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관련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당장, 내년부터 5년간 135억원을 들여 장흥교도소를 활용한 교도소 체험프로그램 및 영화 세트장으로 조성, 인성함양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장흥군 구상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장흥군은 1단계로 여수동 외 1981㎡를 문화예술가 개인 작업실, 레지던스 등으로 조성하고 2단계

로 내부수용동(516㎡)을 교도소 체험공간과 영화·드라마세트장으로 꾸민다는 계획이다. 3단계 사업은 수용동(562.9㎡)과 교회당, 공장동을 기획 전시공간, 문화예술 공연장을 조성하는 게 골자다. 다만, 국비(62억) 확보 뒤 사업 추진이라는 조건이 붙은 만큼 군의 예산 확보 노력이 과제가 될 전망이다.

순천만 갯벌 복원사업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순천시는 지난 2016년부터 순천만 일대(31만1085㎡)의 폐염전을 매입해온 만큼 복원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해수를 유통, 갯벌 생태계를 되살린다는 계획이다.

전남도는 그러나 ▲돌산 항일암권 관광자원 개발사업(여수) ▲백계산 동백정원

조성사업(광양) ▲월출산 충전 100힐링파크 조성(영암) ▲동아시아 인권과 평화미술관 건립사업(신안) 등은 재검토 판정을 받아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동아시아 인권과 평화미술관 건립사업의 경우 대중성 및 사업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백계산 동백정원 조성사업도 국내 외 타지역과의 기본 현황을 비교 분석한 뒤 추진할 것을 요구받았다.

한편, 전남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도 지난달 29일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열고 호남권 직업체력센터 건립, 세계유산 화순 고인돌 방문객센터 건립 등 11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 조만간 심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신안 자은도에 2천억원 들여 관광·휴양시설 짓는다는데...

지오그룹 투자 협약... 실현 가능성 주목

신안 자은도에 900실 규모의 복합리조트·호텔, 펜션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와 신안군은 1일 신안군청에서 지오그룹(회장 최일기)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자은도에 2200억원을 투자, 관광·레저타운을 조성키로 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지오그룹은 오는 2022년까지 신안군 자은면 유각리 일대 27만1000㎡ 부지에 복합리조트(600실)·호텔(150실)·펜션(150동) 등 숙박시설과 요트 50척을 계류할 수 있는 마리나시설, 레저스포츠시설 등 운동·오락시설, 국제예술뮤지엄·국제대학연구소·공연장·오토캠핑장 등 휴양·문화시설, 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전남도와 신안군 등은 자은도 관광레저타운 조성사업의 경우 오는 4월 개통하는 천사대교로 육지와 연결될 뿐만 아니라 목포 해상케이블카 등과 연계해 전

남 서부권 관광 인프라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발이 완료되면 430명 규모의 신규 일자리도 창출된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지오그룹은 지난 2009년 광주에서 설립된 회사로 자본금 40억원에 지난해 매출액 209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지오종합건설(주)을 비롯한 8개 관계사를 두고 힐스테이트 백운·각화·분촌·화순 등의 건설 분야를 맡는 등 부동산개발·종합건설업에 주력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의 아름다운 섬과 해안을 잘 가꿔 내륙관광과 연계한 관광객 600만 시대를 열어가자"고 말했다.

한편, 자은도의 경우 지난 2010년에도 2개 기업들이 펜션, 기업관, 전망카페 등을 짓겠다고 850억 규모의 투자협약을 맺었지만 여태껏 성과를 내지 못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소득하위 20% 노인에 기초연금 최대 월 30만원

25일부터

65세 이상 소득 하위 20% 노인은 이달 25일부터 기초연금을 최대 월 30만원 받는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낮은(하위 20%)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낮은(노인 단독가구 월 5만원 이하, 노인 부부 가구 월 8만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 약 154만명의 기초연금액은 이달부터 최대 월 30만원으로 오른다. 다만 국민연금을 받는 배우자와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은 일부 깎일 수 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평가해 합산한 금액)이 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한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소득 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매년 1월에 전체 노인 소득·재산 분포, 임금·연금·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설정한다. 2019년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는 월 137만원, 노인 부부 가구는 월 219만2000원이다. /연합뉴스



중국어 유해 입관식

1일 오전 인천시 계양구 '중국어 유해 임시안치소'에서 열린 중국군 유해 입관식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원들이 관에 유골을 담고 있다. 이번에 송환되는 중국군 유해는 2018년 3월부터 11월까지 비무장지대(DMZ)에서 발굴된 것으로 신원확인 과정을 거쳐 중국군으로 판정됐다. 이번 송환은 2014년 이후 여섯 번째로 진행되는 것이다. /연합뉴스

남측, 단독 DMZ 유해발굴 착수

국방부는 1일 남측 단독으로 강원도 철원 소재 비무장지대(DMZ) 지역인 화살머리고지에서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작업에 착수했다.

당초 남측은 '9·19 군사합의'를 통해 4월 1일부터 화살머리고지에서 시범적으로

공동유해발굴을 시작하기로 합의했지만, 북측의 소극적인 태도로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남북 공동유해발굴 작업에 대비한 사전 준비 차원에서 화살머리고지 DMZ 내 군사분계선(MDL) 남측지역에서 지난해 실시한 지

리제거 작업에 연계해 추가 지리제거와 기초 발굴작업을 남측 단독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오늘부터 군사분계선 이남지역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향후 실시될 남북공동발굴작업에 대비한 사전 준비 차원에서 작년에 이은 추가 지리제거 및 기초 발굴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신안 압해도~암태도 '천사대교' 4일 개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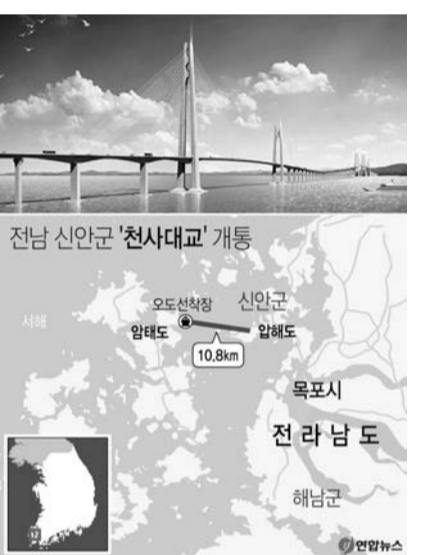
신안 압해도와 암태도를 연결하는 '천사대교'가 4일 오후 3시 개통된다. <관련기사 22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0년 착공한 국도 2호선 압해도-암태도간 10.8km 구간 도로공사를 마무리하고 4일 오후 3시부터 차량통행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암태면 지역에 있는 자은-암태-팔금-안좌도 등 4개 섬 주민(9181명)과 관광객의 교통 편의를 위해 이 공사를 진행했다. 주민·관광객은 이제까지 배 외에는 교통수단이 없어 야간·기상악화 시에는 외부와 왕래가 어려웠다.

2010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104개월 동안 공사비 5814억원이 투입됐다. 핵심 구간인 천사대교(7.22km) 명칭은 지역주민 공모를 통해 국가지명위원회에서 결정했다. 신안군이 1004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지역 특성을 반영했다.

천사대교는 국내 최초로 하나의 교량에 사장교와 현수교가 동시에 배치된 교량이다. 국내 해상교량 중에서 네 번째로 길며



국도에서는 가장 긴 교량이다. 시공 과정에서 국내의 토목 최신공법이 적용돼 학계, 관련 기관 등의 관심을 모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천사대교가 서남권 관광시대를 여는 상징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광주일보 뉴스 NAVER 포스트에서 보세요

임야
단독성/지분물건 환영
바로합니다.010-6834-7400

투자 자모집
3억이상, 연 2부이상 법적보장
(주)오천/최선규.010-3605-5000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옥상 스틸방수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 (슬라브, 옥상)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지붕공사

한옥, 사찰, 축사, 하우스
데스리, 펜션, 전원주택 등 시공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갈라강판 지붕공사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전과 후 시공 가능!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최신공법의 특수 방수! ▶냉난방비 절감 효과!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완도전북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공모

완도전북주식회사는 전북 등 수산식품의 수출진흥 및 전북수급안정, 유통구조 개선, 식품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완도전북주식회사의 미래를 열어갈 역할을 갖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 공모분야 및 자격요건**

공모직위	직급	모집인원	임 기	자격요건 등
이사	대표이사	1명	3년(연임가능)	회사 및 완도군청 홈페이지 "완도전북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공모" 참조
	사내 이사	생산·관리 분야 1명	3년(연임가능)	
	영업·마케팅 분야 1명			
- 전형절차** 공모→서류 및 면접심사→합격자 선정→주총 결의

공모 및 원서 접수기간	구 분	일 시	비 고
2019. 3. 28(목) ~ 2019. 4. 16(화) 18:00시	서류전형	2019년 4월 중	자체 심사기준
	면접전형	2019년 4월 중	
2019. 4. 16(화) 18:00시	합격자 선발	2019년 4월 중	회사 홈페이지 공지
	주총 의결 후 합격자 확정	2019년 5월 중 (예정)	개별통보
- 제출서류** 회사 및 완도군청 홈페이지 "완도전북(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공모" 참조
- 제출방법** 우편, 방문 및 이메일 접수
가. 우 편 : 전남 완도군 완도읍 농공단지 8길11, 완도전북(주) (임원추천위원회)
나. E-mail : abalonekr0401@naver.com
- 기 타**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회사 및 완도군청 홈페이지 "완도전북(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공모" 참조바람

2019년 3월 28일
완도전북주식회사 임원추천위원회